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노동시간 및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김 영 란**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돌봄대상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이다. 또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는 노인의 배우자, 며느리, 친자녀로 한정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돌봄노동시간과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특히 돌봄노동시간은 1일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일 총돌봄시간은 비취업자일수록,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 부돌봄자가 없는 경우 더 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돌봄자의 연령, 취업여부, 노인의 연령 변수이다. 돌봄스트레스의 경우 건강상태만이 7개의 모델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일부 모델에서 유의미하였다. 또 돌봄이후 노인과 의 관계에 대한 돌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돌봄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가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돌봄노동시간이 길수록 돌봄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돌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돌봄도우미 지원이, 돌봄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돌봄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족 돌봄자, 노인, 돌봄노동, 돌봄노동시간, 돌봄스트레스

* 본 연구는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의 가족내돌봄노동실태조사(2006, 한국여성개발원)의 노인돌봄가구(400가구) 데이터를 재분석한 자료에 기초하여 집필한 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교신저자: 김영란(youngnan@kwidimail.re.kr)

I. 서론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9.1%(통계청, 2005)이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이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노년 부양비가 2000년 10.1%에서 2005년 12.6%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1.7%로 추산되어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문제와 더불어 돌봄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인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고령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돌봄 기간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 돌봄에서 가족 구성이나 형태는 핵가족으로 가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율도 증가하여 노인 돌봄의 문제를 더 이상 개별가정에 책임지우기는 어려운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대부분을 가족이 돌보고 있으며 가족 중에서 배우자와 며느리가 가장 많다. 또 이들 돌봄자의 64.2%는 돌봄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돌봄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정정희 외, 2005). 그동안 가족돌봄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부양 부담 등에 관한 것으로 돌봄노동시간을 직접 측정하거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노동시간 총량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돌봄자 특성, 돌봄대상노인 특성,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부담 정도 등의 변수에 따른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인 돌봄노동시간은 장혜경 외(2006)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 노인 돌봄노동시간은 하루 중 절반이상의 장시간 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해보았다. 또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변인의 하나로 포함하여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가족 돌봄자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가족 돌봄자의 돌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백주희, 2007; 최혜지, 2005; 서문경애, 2005; 이영미·유인영, 2005; 윤현숙·류삼희, 2007; 김수영·김진선·윤현숙, 2004; 김혜경, 2004)이 다수이며 돌봄노동시간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돌봄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은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으로는 첫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돌봄자 특성이 있다. 장윤옥(2000)은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및 개인적 특성과 주부의 관련 변인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장애가 심각한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들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노인의 질병 종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밖에 주부의 부양자원이나 가정 자원과 부양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장윤옥·정서린, 2004; 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4)이 있으며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가족돌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연구는 가족관계를 노인의 배우자와 며느리군, 성인자녀로 나누어 돌봄부담을 비교한 연구들이다. 배우자와 성인자녀돌봄자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는 자녀나 다른 친척보다 돌봄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주성·이해정·김기년, 2004; Fitting, Rabins, Lucas & Eastham, 1986; George & Gwyther, 1986; Slitzer & Li, 2000; 윤현숙·류삼희, 2007에서 재인용). 윤현숙·류삼희(2007)는 가족돌봄자를 배우자와 자녀로 나누고 돌봄스트레스를 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모든 영역에서 자녀보다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임미영·김윤정(2006)은 가정부양자의 경우 가정소득에 따라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시설부양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가정 및 시설부양자 모두 건강상태에 따라 부양스트레스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돌봄자의 건강상태 또한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변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 가정부양자의 경우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를 참조하여 돌봄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돌봄자의 성,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에 더하여 취업여부와 노인과의 관계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돌봄대상노인의 특성은 성과 연령변수이외에 질병종류를 인지기능장애인 치매와 기능장애인 치매이외 질병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였으며 기능장애 정도를 경증이하와 중증으로 나누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돌봄대상 노인과의 관계 및 돌봄 동기 등에 대한 논의이다. Porter와 Ganong 등(2004)은 인터뷰조사(80~94세의 여성노인 25명을 대상)를 통해, 흠뻑퍼의 유형을 정기적인 돌봄자(regular helpers), 대기 돌봄자(on-call helpers), 자발적인 수행자(can-will doers), 그리고 주돌봄자(mainstays) 등으로 분류하고, 도움의 형태에 따라 흠뻑퍼를 분류하였을 때, 그들 노력의 잠재적인 가치가 좀 더 명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제공자의 기본적 특성 이외에 돌봄 동기의 자발성 여부와 돌보고 있는 노인과의 관계 또한 돌봄스트레스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돌봄대상 노인과의 관계 및 돌봄의 동기는 돌봄 역할에 대한 가치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앞서 Porter와 Gano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말한 것처럼 돌봄 동기에 따른 돌봄제공자의 유형분류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도 연계된다면 자발적 동기에서 돌봄을 선택한 경우 돌봄역할에 대한 가치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Horowitz와 Goodman 등(2004)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차 케어 제공자는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지만, 케어 제공과 관련된 정서적 신체적 요구 때문에 케어 수혜자와 제공자들 관계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케어제공 경험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합의 결여가 이러한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서로 어긋나는 견해에 대한 지식이 케어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어 제공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와 수혜자의 의견일치는 케어 제공의 질을 위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면, 후기 기능적 건강상태에서의 노인과 케어 제공자 사이에서의 의견 일치가 좀 더 나은 관계의 질 향상과 관계있다는 것이다(Fingerman, 1996). 또 다른 연구는 노인의 기능에 대한 가족의견 일치가 케어제공자의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ruchno, Burant, & Peters,

1997). 또한 불일치는 노인과 일차적인 지지 제공자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나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내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Okun & Keith, 1998; Reinhardt, 2001; Rook, 1997).

셋째, 돌봄지원네트워크에 있어 우선,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돌봄 부담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여부가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이혜자, 2006)에 의하면 노인부양으로 인한 주부양자의 분노, 우울, 소외감, 소진 등의 정서적 부담은 감소효과가 없으나 신체적, 사회활동적,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재정적 부담, 및 총부양부담에서의 감소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낮시간 동안 노인을 돌봐주는 시설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주부양자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정서적 부담의 감소는 없으나 다른 영역의 돌봄부담 완화에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또 임미영·김윤정(2006)은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가정부양자와 시설부양자가 겪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시설부양자에 비해 가정부양자가 속박감, 소진, 가족관계 악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돌봄자 특성, 돌봄대상노인 특성,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지원네트워크, 돌봄비용부담 정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돌봄비용부담 정도는 장혜경외(2005)의 연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인에 포함하였다. 또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돌봄자 특성의 가구소득과 관련이 있어 돌봄자 특성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노인을 돌봄으로서 발생하는 돌봄비용과 의료비용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정도로서 돌봄자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III. 자료와 연구 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가족내 돌봄노동실태조사」(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장혜경 외(2006)의 연구에서 조사 대상은 가족 내에서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는 가구의 가족 돌봄자이다. 이때 가족 돌봄자는 돌봄대상노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서 노인과 동거하거나 만약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노인을 돌보아야 하며 무급이어야 한다. 표본 수는 서울과 경기지역 노인 돌봄 가구 총 400가구였다¹⁾. 조사 설문지는 돌봄 상황에 대한 설문지와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방식은 면접원에 의한 가구방문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일지는 응답자인 가족 돌봄자가 자기기입식으로 하루 24시간, 총 3일간의 노인돌봄행동일지를 10분 단위 시간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중과 주말의 돌봄 시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총 3일간의 조사 기간 중 반드시 주말 1일이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결과 돌봄자와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노인의 배우자 148명, 며느리 135명, 자녀 100명, 기타 노인의 형제, 손자녀, 조카 등이 17명이었다. 또 돌봄자가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는 397가구, 비동거가구 3가구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돌봄대상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로 하였다. 또 돌봄자와 노인의 가족관계는 노인의 배우자, 며느리, 친자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정경희 외(2004)의 노인 생활실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노인의 배우자와 며느리, 자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다. 둘째는 돌봄 노동시간,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돌봄자와 노인의 가족관계가 끼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관계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전체 400가구 중 돌봄대상노인과 돌봄자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 3사례²⁾도 제외하

1)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공식 돌봄지원시설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전국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 동거하지 않고 노인을 돌보는 돌봄자 3명은 모두 노인의 자녀이다.

였다. 이 또한 가족내 노인 돌봄 시간과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노인과 돌봄자가 동거하는 경우로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인의 배우자, 며느리, 자녀이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돌봄자 380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이다.

돌봄노동시간은 가족돌봄자가 하루 24시간동안 수행한 돌봄행동 시간을 말한다. 돌봄 행동은 노인을 돌보는 행동을 10개의 코드로 분류하였다. 노인 돌봄노동 코드 분류는 선행 연구의 분류들과³⁾ 독일 수발 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재가 서비스의 내용⁴⁾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10개의 대분류 항목은 개인위생, 이동, 식사, 배설, 가사활동, 외출,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감시 관련 활동, 기타이며 각 항목별로 세부 행동 내용을 제시하였다(장혜경 외, 2006:264). 돌봄노동코드 대분류 항목에 있어 가사활동의 경우 노인을 위한 가사활동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사활동영역의 세부내용에 노인을 위한 가사일과 가족원을 위한 가사일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였으나 실제 조사에서 가사일의 성격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돌봄대상노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돌봄자의 전체 가사활동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간주하여 가사활동시간을 돌봄노동시간 총량 계산에 산입하였다⁵⁾.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가사

3)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 長壽科學綜合研究事業, 分擔研究報告書「新しい要介護認定方法開発のための基礎的研究」, (主任研究者: 遠藤英俊) 平成16年(2004); 박영란 외 (2005)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관련 쟁점 연구」;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2005)의 「가족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

4) 독일 재가 서비스는 개별서비스 17종과, 늑기/전반적 기초 수발, 음식물섭취 관련 간단한 기초수발, 전반적인 가사 업무 보조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9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비스 종류별로 수가를 측정하기 위해 세부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표준 가격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5) 노인 돌봄노동에 가사활동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공식돌봄자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유급으로 일할 경우 가사활동시간도 노동시간에 산입되기도 하며 노인

노동은 대상이 노인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되,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돌봄스트레스 척도는 Kosberg, Jordan I. 외(1986, 1990)의 Cost of Care Index(CCI)를 사용하였다. “돌봄제공자와 가족의 부담(Caregiver and Family Burden)”관련 문헌 리뷰⁶⁾에 의하면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에 대한 척도는 대략적으로 9개 척도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Caregiver Burden-Stull(1994)의 척도는 부담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측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Stull 외(1994)에 의하면 돌봄제공자의 부담은 돌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로서 신체적 부담, 사회적 제약, 경제적 부담의 3개 영역 9개 항목이다. 각 영역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사회적 부담은 Cronbach’s α 값(.81, .80)이 높은 편이지만 재정적 부담은 Cronbach’s α 값 .58로 낮은 편이다. ‘Cost of Care Index(CCI)’는 젠더(gender)와 생활형태, 돌봄제공자(caregiver)의 기능과 환자의 기능 등을 다룬 내용으로 다양한 조건의 돌봄제공자에 대한 스크리닝 척도로 사용 가능하다. Kosberg, Jordan I. 외(1986, 1990)에 의하면 CCI는 사례관리도구로 이용하도록 발전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이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위한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비공식 노인 돌봄제공자의 부담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욕구를 평가하여 전문가의 개입이나 지원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I는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2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5개 영역은 개인적 사회적 제약, 신체적 정서적 건강,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 돌봄 수혜자 관련특성(Care Recipient as provocateur), 경제적 비용 등이다. 본 조사에서는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장혜경 외, 2006:266). CCI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의 IADL 정도에 따라 가사지원서비스가 돌봄노동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격실시를 앞두고 노인 돌보미의 업무영역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Home Helper는 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6) <http://www.gwu.edu/~cicd/toolkit/caregive.htm>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885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돌봄자 특성, 돌봄대상노인 특성, 돌봄자와 노인과의 관계, 지원네트워크, 경제적부담정도이다. 돌봄자 특성은 성, 연령, 취업여부, 건강상태, 노인과의 가족관계, 가구소득으로 하였다. 성은 가변수화하여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남성을 1로 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취업여부는 취업을 기준으로 하고 비취업을 1로 한 가변수이다. 건강상태는 돌봄자가 스스로 판단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노인과의 가족관계는 배우자를 준거집단으로 2개의 가변수를 구성하였다. 즉 배우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며느리인 경우와 자녀인 경우, 두 개의 변수이다. 가구소득은 150만 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하고 그 이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저소득층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가변수화하였다.

돌봄대상노인 특성은 노인의 성, 연령, 질병과 상태이다. 노인의 성은 여성을 준거로 하여 남성을 1로 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이다. 노인의 질병은 매우 다양하지만 분석을 위하여 치매와 치매이외의 노인성 질환으로 나누었다. 인지 장애인 치매와 기능 장애의 성격이 강한 노인성 질환은 돌봄행동의 내용 및 시간과 돌봄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질병 상태는 경증이하와 중증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상태는 일상생활활동 측정(ADL)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측정(IADL) 문항으로 파악하였으며 중증은 일상생활활동 문항가운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항목이 1개라도 있는 경우이다. 노인의 질병과 상태는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준거집단은 각각 치매와 경증이하이다.⁷⁾

7) 인지장애와 증상의 정도를 연계하여 다중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질환의 종류와 증상의 경중을 조합한 집단이 돌봄노동시간과 스트레스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으로 고려대상집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노인의 질병 종류와 기능장애정도를 연계하여 4개의 집단(치매경증/치매중증/비치매중증, 가변수로 치매경증을 기준으로 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해보았음. 그 결과 돌봄시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돌봄스트레스 모델의 경우 모델 2 돌봄대상노인모델에서 비치매경증이 치매경증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였으며 스트레스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다른 모델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음. 이에 현재처럼 질병종류와 질병상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는 노인 돌봄 이전에 노인과의 관계 친밀성 정도와 돌봄이후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와 돌봄선택의 자발성 정도로 구성하였다. 이 세가지 척도는 문항 응답에서 모두 돌봄자의 주관적 판단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다. 돌봄이전 노인관계 친밀성 정도와 돌봄후 노인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돌봄선택의 자발성 정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의에 의한 선택이다.

지원네트워크는 가족내 부돌봄자 유무, 돌봄 시설과 도우미 이용 여부, 돌봄지원가족 여부이다. 4개 변수 모두 가변수이며, ‘없음’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있음’을 1로 하였다. 부돌봄자는 “자신 다음으로 노인을 많이 돌보는 사람”으로 돌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돌봄시설과 도우미는 가족이 외에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주간보호센터, 각종 요양시설 등 시설과 간병인 등 유급 도우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돌봄지원가족은 부돌봄자와 달리 돌봄자와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돌봄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부담정도는 돌봄비용과 의료비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돌봄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돌봄비용과 의료비용 부담 척도를 합하여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10점으로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SPSS for Windows 14.00 version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기법으로는 표본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각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또 1일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및 돌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별로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의 유의함과 각 집단별 평균에 대해 알아보았다.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태로 구분하여 치매인 경우, 중증인 경우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명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노인의 질병종류와 상태를 분리하여 단독변수로 구성함.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가지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1>은 돌봄자 요인, <모델2>는 돌봄자와 돌봄대상노인 요인, <모델3>은 <모델2>에 노인과의 관계 요인을 추가하였으며 <모델4>는 <모델3>에 지원네트워크 요인을, <모델5>는 <모델4>에 경제적 부담 정도 요인을 각각 추가하였다. 각 모델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조하여 변인을 연관항목끼리 묶은 것으로 각각의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다음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5개의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인은 위에서 구성한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모델과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구성한 <모델6>과 <모델7>은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돌봄시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모델5>에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과 총돌봄노동시간을 추가하여 만들었다. 돌봄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대한 7개의 모델 또한 탐색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엄격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한 모델 적합성 검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V. 조사 결과

1. 돌봄자와 돌봄대상노인의 특성

1) 돌봄자의 특성

돌봄자는 여성이 83.9%, 남성이 16.1%로 여성이 대다수이다. 연령은 40세~49세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60세~69세(22.1%), 70세이상(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자의 취업상태는 취업자가 17.3%, 비취업자가 81.3%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보면 매우 나쁘다와 나쁜 편이다를 합하면 46.8%, 보통이다가 31.8%,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를 합하면 21.3%로 나타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38.9%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며느리로 35.5%이며 자녀는 25.5%로 나타났다. 자녀 중 딸은 75명, 아

들은 22명으로 딸이 더 많다. 가구소득은 1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51.1%, 중산층 이상이 48.9%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1〉 돌봄자의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성 별	여성		319(83.9)
	남성		61(16.1)
연 령 (평균= 55.82세, 표준편차= 14.10)	29세이하		2(0.5)
	30세~39세		51(13.4)
	40세~49세		99(26.1)
	50세~59세		65(17.1)
	60세~69세		84(22.1)
	70세이상		79(20.8)
취업여부	취업		71(18.7)
	비취업		309(81.3)
건강상태 (평균 2.63, 표준편차 .94)	매우나쁘다		40(10.5)
	나쁜편이다		138(36.3)
	보통이다		121(31.8)
	좋은편이다		79(20.8)
	매우좋다		2(0.5)
관 계	배우자		148(38.9)
	며느리		135(35.5)
	자녀	딸	75(19.7)
		아들	22(5.8)
가구소득	150만원이하		194(51.1)
	151만원이상		186(48.9)

2) 돌봄대상노인의 특성

돌봄대상노인은 여성이 60.5%, 남성이 39.5%로 돌봄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다수이다. 연령은 80세이상이 3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75세이상~80세미만으로 25.5%이다. 이를 보면 75세이상이 57.6%로 절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노인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77.11세로 돌봄대상노인 가운데 고령노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질병은 치매인 경우가 23.9%, 치매이외의 노인성 질환인 경우가 76.1%로 나타났다. 노인의 질병 상태는 허약 및 경증이 31.3%, 중증이 68.7%로 중증노인의 비율이 경증이하에 비해 두배 정도 더 많은 비율을 보인다.

〈표 2〉 돌봄대상노인의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노인성별	여성	230(60.5)
	남성	150(39.5)
노인연령 (평균= 77.11세, 표준편차= 8.23)	65세미만	18(4.7)
	65세이상~70세미만	55(14.5)
	70세이상~75세미만	88(23.2)
	75세이상~80세미만	97(25.5)
	80세이상	122(32.1)
노인질병	치매	91(23.9)
	치매 이외 노인성질환	289(76.1)
노인상태	허약 및 경증	119(31.3)
	중증	261(68.7)

2.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및 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부담 정도

1)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제공이전 노인과의 친밀성 정도를 보면 친밀한 편이었다와 매우 친밀하였다를 합하여 48.4%, 보통이다가 36.3%, 소원한 편이다와 소원했다가 15.3%였다. 이를 보면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했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돌봄제공이후 관계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21.6%, 보통이다가 47.6%, 만족하는 편이 30.8%로 만족하는 경우가 다소 높았다. 노인 돌봄 선택의 자발성 정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다가 53.4%, 대체로 그렇다가 35.0%로 전체 돌봄자 가운데 88.4%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변 수		구 분	빈 도(%)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노인과의 친밀성 정도 (평균 3.42, 표준편차 .99)	매우 소원했다	16(4.2)
		소원한 편이었다	42(11.1)
		보통이었다	138(36.3)
		친밀한 편이었다	133(35.0)
		매우 친밀했다	51(13.4)
	돌봄후 노인관계 만족도 (평균 3.09, 표준편차 .83)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11(2.9)
		만족하지 않는다	71(18.7)
		보통이다	181(47.6)
		만족하는편이다	106(27.9)
		매우만족한다	11(2.9)
	돌봄선택의 자발성 (평균 1.62, 표준편차 .80)	전적으로 그렇다	203(53.4)
		대체로 그렇다	133(35.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7.4)
		전적으로그렇지 않다	16(4.2)

2) 돌봄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부담 정도

가족이나 친척 중에 돌봄자를 도와주는 부돌봄자는 없는 경우가 66.3%로 있는 경우(33.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노인을 돌보는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돌봄자의 16.1%만이 관련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우미 이용에 대해서도 돌봄자 가운데 2.4%만이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 이용경험을 0.4%,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이용경험을 0.2%, 또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주간보호 0.2%, 가사지원서비스 0.7%로 매우 낮아 공적지원서비스가 매우 미흡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정경희 외, 2004:509~510). 마지막으로 비동거 가족으로서 돌봄을 지원해주는 가족여부에 대해 보면 있는 경우가 15.8%, 없는 경우가 84.2%였다. 이를 보면 노인 돌봄자의 지원네트워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돌봄자나 돌봄지원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설이나 도우미 이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지원보다는 사적인 가족지원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정도는 돌봄 관련 비용과 의료비용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돌봄비용은 환자식 비용, 기저귀 및 위생침구, 환자용 침대 및 휠체어와 환자 간병에 편리하도록 주거공간을 개조하는 비용 까지 노인 환자를 돌봄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모두 의미하며 의료비용은 병원치료비, 약값 등을 말한다. 각각에 대한 부담정도를 보면 돌봄 비용의 경우 부담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부담이 된다는 합하여 77.6%로 나타나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전체의 1/3이 넘었다. 의료 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편이다가 44.1%, 매우 부담이 된다가 27.2%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돌봄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비용 부담 정도

변 수		구 분	빈 도(%)
지원 네트워크	부돌봄자유무	없다	252(66.3)
		있다	128(33.7)
	돌봄시설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319(83.9)
		이용함	61(16.1)
	돌봄도우미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371(97.6)
		이용함	9(2.4)
	돌봄지원 가족 여부 (비동거가족원)	없다	320(84.2)
		있다	60(15.8)
경제적 부담정도	돌봄비용부담 (평균 4.02, 표준편차 .90)	전혀부담이되지않는다	5(1.6)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13(4.2)
		보통이다	52(16.7)
		부담이 되는 편이다	142(45.5)
		매우 부담이 된다	100(32.1)
	의료비용부담 (평균 3.88, 표준편차 .95)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5(1.5)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26(7.7)
		보통이다	66(19.5)
		부담이 되는 편이다	149(44.1)
		매우 부담이 된다	92(27.2)

3. 돌봄자의 돌봄 시간

1) 돌봄자 및 돌봄대상노인 특성별 돌봄노동시간 차이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에 대해 각각의 독립변수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돌봄자 전체의 돌봄 시간 평균은 가사활동 시간을 포함한 총돌봄노동시간은 12시간 56분이며 가사활동을 제외하면 8시간 16분이었다. 이를 통해 노인 돌봄자는 하루 중 절반에 달하는 시간(가사활동을 제외할 경우 1/3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인 돌봄에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돌봄노동시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돌봄자의 취업여부이다. 돌봄자 중 취업자의 총돌봄노동시간은 9시간 43분, 비취업자는 13시간 40분으로 취업자의 돌봄노동시간이 약 4시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자라 하더라도 노인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하루의 1/3을 넘고 있어 취업과 노인 돌봄의 병행에 있어 시간 사용의 부담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⁸⁾. 그 외에 돌봄자와 돌봄대상노인 특성별로 총돌봄노동시간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노인의 연령을 제외하고 성, 질병의 종류,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총돌봄노동시간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 변수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연령이 낮은 65세이하의 돌봄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돌봄 활동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외출’, ‘치료 및 재활’이었다. 즉, 65세 이하의 노인은 외출에 평균 1시간 21분을 쓰는 반면 80세이상은 38분으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또 치료 및 재활은 65세이하 1시간 57분, 80세이상 33분이었다. 이를 보면 노인의 연령이 낮은 경우 치료 및 재활 또는 외출을 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노인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예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봄시간이 더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 노인의 연령과 질병 종류 및 기능상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연령은 기능상태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8) 덧붙여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집중적,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여하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는 노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의 종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인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X^2=36.674$, $df=4$, $sig=.000$). 치매의 경우 외출을 거의 하기 어려우며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나 재활을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예상과 달리 연령이 낮은 노인의 돌봄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돌봄자의 연령, 취업여부와 가족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자의 연령에 따라 70세이상인 경우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이 9시간 31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30대가 6시간 32분으로 가장 짧았다. 또 취업자는 6시간 2분, 비취업자는 8시간 47분으로 비취업자의 돌봄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상으로는 돌봄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 13시간 17분, 며느리 12시간 52분, 자녀 12시간 29분으로 배우자가 가장 길었다. 또 자녀와 며느리를 비교하면 자녀의 돌봄노동시간이 며느리보다 약 23분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돌봄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의 차이는 9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시간이 더 길었다. 돌봄자의 건강상태는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선행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상호작용요인으로 돌봄노동시간이 길어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게 될 수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돌봄자 및 돌봄대상노인 특성별 돌봄노동시간 차이

변 수	구 분	총돌봄노동시간 (평균 12시간 56분)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평균 8시간 16분)		
		평균	F(.sig)	평균	F(.sig)	scheffe
돌봄자	성별	여성	2.974	8시간10분	2.180	-
		남성		8시간47분		
	연령	29세이하	.819	7시간40분	7.961***	30대~50대; 30대~60대; 30대~70대; 40대~60대
		30세~39세		6시간32분		
		40세~49세		7시간42분		
		50세~59세		8시간28분		
		60세~69세		8시간41분		
		70세이상		9시간31분		

(계속)

변 수		구 분	총돌봄노동시간 (평균 12시간 56분)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평균 8시간 16분)		
			평균	F(.sig)	평균	F(.sig)	scheffe
돌봄자	취업 여부	취업	9시간43분	137.161***	6시간2분	56.479***	-
		비취업	13시간40분		8시간47분		
	건강 상태 ¹⁾	나쁘다	13시간12분	1.534	8시간41분	3.365*	-
		보통이다	12시간36분		7시간51분		
		좋다	12시간49분		7시간59분		
	관계	배우자	13시간17분	2.199	9시간25분	23.001***	배우자-며느리; 배우자-자녀; 며느리-자녀
		며느리	12시간52분		7시간8분		
		자녀	12시간29분		8시간6분		
	가구 소득	150만원이하	13시간11분	2.757	8시간53분	17.347***	-
		151만원이상	12시간40분		7시간38분		
돌봄 대상 노인	노인 질병	치매	12시간44분	.563	7시간53분	2.026	-
		치매이외 노인성질환	12시간60분		8시간23분		
	노인 상태	허약 및 경증	12시간39분	1.542	7시간36분	8.693**	-
		중증	13시간4분		8시간34분		
	노인 성별	여성	12시간56분	.001	8시간2분	3.422	-
		남성	12시간56분		8시간37분		
	노인 연령	65세미만	13시간55분	2.588*	10시간2분	2.822*	-
		65세이상 ~70세미만	12시간57분		8시간31분		
		70세이상 ~75세미만	13시간21분		8시간31분		
		75세이상 ~80세미만	13시간11분		8시간14분		
		80세이상	12시간17분		7시간45분		

* p < .05; ** p < .01; *** p < .001

주: 1) 5점척도(1=매우나쁘다, 2=나쁜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편이다, 5=매우좋다)를 3점척도(1=나쁘다, 2=보통이다, 3=좋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2)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별 돌봄노동시간 차이

돌봄전 노인과의 친밀성 정도, 돌봄후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에 따라 돌봄 노동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선택의 자발성 정

도에 따른 돌봄노동시간 차이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 제외 돌봄노동시간 모두 동일하였다. 결국 노인 돌봄은 노인과의 관계나 자발성 정도에 따라 투여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노동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6〉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별 돌봄노동시간 차이

변 수		구 분	총돌봄노동시간 (평균 12시간 56분)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평균 8시간 16분)	
			평균	F(.sig)	평균	F(.sig)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 정도 ¹⁾	소원했다	12시간37분	.422	8시간 8분	.640
		보통이다	12시간56분		8시간 5분	
		친밀했다	13시간 2분		8시간27분	
	돌봄후 관계 만족도 ¹⁾	만족하지 않는다	12시간50분	.605	7시간58분	.526
		보통이다	13시간 6분		8시간19분	
		만족한다	12시간44분		8시간24분	
	돌봄 선택의 자발성 ²⁾	그렇다	12시간55분	.014	8시간21분	2.597
		그렇지않다	12시간59분		7시간35분	

주: 1) 5점척도(1=매우 소원했다, 2=소원한 편이었다, 3=보통이다, 4=친밀한 편이었다, 5=매우 친밀했다)를 3점척도(1=소원했다, 2=보통이다 3=친밀하였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2) 4점척도(1=전적으로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를 2점척도(1=그렇다, 2=그렇지 않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3) 돌봄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비용 부담 정도별 돌봄노동시간 차이

가족 내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 돌봄노동시간은 12시간 16분이고 없는 경우에 13시간 16분으로 부돌봄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원네트워크에서 돌봄시설이나 도우미 등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동거 가족원의 지원도 마찬가지로 돌봄자의 시간을 줄여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인 돌봄시설이나 도우미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최근 6개월간의 이용경험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실제 조사기간 중의 돌

봄노동시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비동거 가족원에 의한 지원 네트워크도 이용 비율은 사회적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봄비용과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에 따른 돌봄노동시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부돌봄자여부와 돌봄비용부담정도이다. 총돌봄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에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이 부돌봄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함께 사는 가족원 중에서 돌봄자를 지원하는 부돌봄자가 있는 것이 돌봄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다음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해서 돌봄비용부담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돌봄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집단은 8시간 44분, 부담이 되지 않는 집단은 6시간 21분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돌봄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비용 부담 정도별 돌봄노동시간 차이

변 수		구 분	총돌봄노동시간 (평균 12시간 56분)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평균 8시간 16분)		
			평균	F(.sig)	평균	F(.sig)	scheffe
지원 네트 워크	가족내 부돌봄자 유무	없다	13시간16분	9.858**	8시간37분	10.231**	-
		있다	12시간16분		7시간35분		
	돌봄시설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12시간53분	.352	8시간12분	.925	-
		이용함	13시간 8분		8시간36분		
	돌봄도우미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12시간55분	.765	8시간14분	2.603	-
		이용함	13시간47분		9시간51분		
	돌봄지원 가족여부 (비동거 가족원)	없다	13시간 0분	1.325	8시간20분	.789	-
		있다	12시간31분		7시간57분		

(계속)

변 수		구 분	총돌봄노동시간 (평균 12시간 56분)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평균 8시간 16분)		
			평균	F(sig)	평균	F(sig)	scheffe
경제적 부담 정도	돌봄비용 부담 ¹⁾	부담이되지 않는다	12시간26분	2.602	6시간21분	7.000***	부담되지 않음- 부담이됨
		보통이다	12시간31분		7시간47분		
		부담이된다	13시간24분		8시간44분		
	의료비용 부담 ¹⁾	부담이되지 않는다	12시간31분	1.598	7시간21분	3.483*	-
		보통이다	12시간28분		7시간46분		
		부담이된다	13시간 7분		8시간32분		

* p < .05; ** p < .01; *** p < .001

주: 1) 5점척도(1=전혀부담이되지않는다, 2=부담이되지않는편이다, 3=보통이다, 4=부담이 되는편이다, 5=전혀부담이되지 않는다)를 3점척도(1=부담이되지않는다, 2=보통이다, 3=부담이된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4. 돌봄자의 돌봄스트레스 정도

1) 돌봄자 및 돌봄대상노인 특성별 돌봄스트레스 정도 차이

돌봄자 특성별 돌봄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돌봄자의 건강상태,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에 비해 돌봄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50만원이하인 집단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 며느리, 자녀에 따라 노인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도 차이가 없었다. 이를 보면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는 돌봄자의 가족관계나 취업여부에 무관한 것을 보여준다.

다음 돌봄대상노인의 특성별로는 노인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질병이 치매인 집단과 질병 상태가 중증인 경우 돌봄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이는 장혜경외(2005)의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치매노인 돌봄자는 노인의 인지장애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이 치매인 경우에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보다 돌봄스트레스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8〉 돌봄자와 돌봄대상노인 특성별 돌봄스트레스 차이

변 수		구 분	돌봄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F(.sig)	scheffe
돌봄자	성별	여성	62.90(11.58)	.081	
		남성	62.68(10.80)		
	연령	29세이하	66.50(10.61)	1.992	
		30세~39세	58.90(12.97)		
		40세~49세	63.58(10.54)		
		50세~59세	64.97(10.29)		
		60세~69세	63.64(12.08)		
		70세이상	61.91(11.37)		
	취업여부	취업	61.17(12.18)	1.935	
		비취업	63.26(11.25)		
	건강상태 ¹⁾	나쁘다	66.12(10.63)	14.857***	나쁨-보통; 나쁨- 좋음
		보통이다	60.58(10.61)		
		좋다	59.16(12.50)		
	관계	배우자	63.46(11.25)	.508 (.602)	
		며느리	62.10(11.25)		
		자녀	63.04(12.06)		
	가구소득	150만원이하	64.12(11.57)	4.794*	
		151만원이상	61.56(11.20)		
돌봄 대상 노인	노인질병	치매	65.66(11.41)	6.930**	
		치매이외노인성질환	62.01(11.34)		
	노인상태	허약 및 경증	58.56(11.62)	26.172**	
		중증	64.84(10.83)		
	노인성별	여성	62.77(11.76)	.042	
		남성	63.02(10.99)		
	노인연령	65세미만	64.72(14.23)	.483	
		65세이상~70세미만	62.61(12.55)		
		70세이상~75세미만	61.83(10.49)		
		75세이상~80세미만	63.84(11.07)		
		80세이상	62.70(11.54)		

*p < .05; ** p < .01; *** p < .001

주: 1) 5점척도(1=매우나쁘다, 2=나쁜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편이다, 5=매우좋다)를 3점
척도(1=나쁘다, 2=보통이다, 3=좋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2)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특성별 돌봄스트레스 정도 차이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변수 가운데 돌봄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돌봄후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이다. 아래 <표 9>를 보면 노인을 돌보게 된 이후 노인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돌봄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돌봄전의 노인과의 친밀성 정도나 돌봄 선택의 자발성 정도에 따라서는 돌봄스트레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현재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가 돌봄스트레스의 차이에 가장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질문문항이 주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만족도 이외에 돌봄상황이라는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판단에 기초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돌봄 부담에 관계없이 돌봄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기초한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가 돌봄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돌봄 선택이 자발적일수록 돌봄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집단에서는 돌봄스트레스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9〉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별 돌봄스트레스 차이

변 수		구 분	돌봄스트레스		
			평 균 (표준편차)	F(.sig)	scheffe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 정도 ¹⁾	소원했다	65.16(10.49)	1.831	
		보통이다	63.16(11.19)		
		친밀했다	61.93(11.86)		
	돌봄후 관계 만족도 ¹⁾	만족하지 않는다	69.18(10.78)	20.646***	만족않음-보 통;만족않음 -만족;보통- 만족
		보통이다	62.40(10.55)		
		만족한다	59.18(11.49)		
	돌봄 선택의 자발성 ²⁾	그렇다	62.79(11.34)	.139	
		그렇지않다	63.48(12.33)		

*** p < .001

주: 1) 5점척도(1=매우 소원했다, 2=소원한 편이었다, 3=보통이다, 4=친밀한 편이었다, 5=매우 친밀했다)를 3점척도(1=소원했다, 2=보통이다, 3=친밀하였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2) 4점척도(1=전적으로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를 2점척도(1=그렇다, 2=그렇지 않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3) 돌봄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부담 정도별 돌봄스트레스 정도 차이

아래 <표 10>을 보면 돌봄지원네트워크에 따른 돌봄스트레스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지원네트워크는 공식 지원과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 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사결과 공식지원 이용 경험율이 매우 낮아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지원 효과가 없으며 동시에 돌봄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에 의한 비공식 지원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 비용과 의료비용 부담정도에 따라서는 돌봄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돌봄비용과 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집단일수록 돌봄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

〈표 10〉 돌봄지원네트워크와 경제적 부담 정도별 돌봄스트레스 차이

변 수		구 분	돌봄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F(.sig)	scheffe
지원 네트 워크	부돌봄자 유무	없다	62.65(11.61)	.267	
		있다	63.30(11.15)		
	돌봄시설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62.45(11.21)	2.764	
		이용함	65.10(12.45)		
	돌봄도우미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62.81(11.51)	.465	
		이용함	65.44(8.37)		
	돌봄지원 가족여부	없다	62.46(11.61)	2.593	
		있다	65.05(10.33)		
경제적 부담 정도 ¹⁾	돌봄비용 부담	부담이되지 않는다	49.33(12.87)	22.212***	부담안됨-보통; 부담안됨-부담 됨;보통-부담됨
		보통이다	58.62(11.33)		
		부담이된다	65.02(10.75)		
	의료비용 부담	부담이되지 않는다	56.10(15.72)	18.171***	부담안됨-부담 됨;보통-부담됨
		보통이다	57.80(11.43)		
		부담이된다	65.14(10.06)		

*** p < .001

주: 1) 5점척도(1=전혀부담이되지않는다, 2=부담이되지않는편이다, 3=보통이다, 4=부담이되는편이다, 5=전혀부담이되지 않는다)를 3점척도(1=부담이되지않는다, 2=보통이다, 3=부담이된다)로 리코드하여 분석함

5.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 및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설명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 및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1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종속변수는 1일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그리고 돌봄스트레스이다. 독립변수는 돌봄자 특성, 돌봄대상노인특성,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특성, 지원네트워크, 경제적 부담정도의 5가지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순차적으로 변수를 추가하는 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는 종속변수로 설정된 1일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 시간을 차례로 추가하여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확인하여 돌봄노동시간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1〉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

변 수		정 의	비 고	
종속변수1	1일 총돌봄노동시간	범위: 0시간~24시간	돌봄노동시간 합계	
종속변수2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범위: 0시간~24시간	돌봄노동시간중 가사활동시간 제외	
종속변수3	돌봄스트레스(20문항)	범위: 20점~100점	5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	
독립 변수*	돌봄자	성별	0: 여성 1: 남성	
		연령	연속변수	
		취업여부	0: 취업 1: 비취업	취업자기준
		건강상태	범위: 1점~5점	5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
		노인과의 관계1	자녀	기준집단은 배우자
		노인과의 관계2	며느리	기준집단은 배우자
		가구소득	0: 저소득층 1: 중산층이상	저소득층: 150만원이하 중산층이상: 151만원이상
	돌봄 대상노인	노인질병	0: 치매 1: 치매이외	치매기준
		노인상태	0: 경증이하 1: 중증	경증기준
		노인성별	0: 여성 1: 남성	여성노인기준
		노인연령	연속변수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정도	범위: 1점~5점	5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함
		돌봄후 관계만족도	범위: 1점~5점	5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
		돌봄선택의 자발성	범위: 1점~4점	4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타의에 의한 선택임

(계속)

변 수			정 의	비 고
독립 변수*	지원 네트워크	부돌봄자유무	0: 없다 1: 있다	없음기준
		돌봄시설이용여부	0: 이용하지 않음 1:이용함	비이용기준
		돌봄도우미이용여부	0: 이용하지 않음 1: 이용함	비이용기준
		돌봄지원가족여부	0: 없다 1: 있다	없음기준
	경제적 부담정도	돌봄 및 의료비용부담	범위: 1점~10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됨

2) 돌봄자의 1일 돌봄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1일 총돌봄노동시간에 대한 요인

돌봄자의 1일 총돌봄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2> 참조). 돌봄자 특성만을 사용한 <모델1>에서는 취업여부 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의 총돌봄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모델2>는 Adj. R² 값이 0.02정도 증가하여 돌봄대상노인 특성이 추가됨으로써 모델의 설명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돌봄자의 성과 취업여부가 유의미하며 돌봄대상노인 특성요인 중에서는 노인의 연령과 성별이 유의미하였다.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노인을 돌보는 경우 1일 총돌봄노동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T-Test 결과에 의하면 성별 총돌봄노동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결과 노인의 성별이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또 표5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65세미만이 시간이 가장 길고 80세 이상이 가장 적어서 연령과 총돌봄노동시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모델3>은 <모델2>에 노인의 관계 요인을 추가한 것인데 Adj. R²값의 변화가 없어 노인과의 관계 요인은 총돌봄노동시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네트워크 요인을 추가한 <모델4>의 경우 <모델3>의 돌봄자의 성, 취업여부, 노인의 연령에 이어 부돌봄자 유무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5>는 경제적 부담 정도를 추가한 것으로 총돌봄노동시간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모델의 Adj. R2 값은 .309로 <모델4>에 비해 증가하여 변수추가로 인해 설명력은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돌봄자의 총돌봄노동시간에 대하여 유의미한 변수는 돌봄자의 취업여부, 노인의 연령, 부돌봄자 유무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자일수록,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 부돌봄자가 없는 경우 돌봄자의 총돌봄노동시간은 더 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12〉 1일 총돌봄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독립변수		〈모델1〉 돌봄자모델		〈모델2〉 돌봄대상노인모델		〈모델3〉 노인과의관계 모델		〈모델4〉 지원네트워크 모델		〈모델5〉 경제적부담모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 수		656.048		783.671		717.275		720.265		588.414	
돌봄자	성별	-25.420	-.052	-66.193*	-.136	-68.386*	-.140	-59.507*	-.122	-59.572	-.118
	연령	-1.091	-.086	.989	.078	1.193	.094	1.456	.115	2.082	.163
	취업여부	237.722***	.519	230.652***	.503	227.401***	.496	225.727***	.492	242.758***	.522
	건강상태	3.245	.017	1.349	.007	.901	.005	1.765	.009	-2.812	-.015
	관계1- 자녀	-20.581	-.050	23.530	.057	18.241	.045	37.529	.092	31.569	.077
	관계2- 며느리	-13.110	-.035	33.418	.090	33.477	.090	62.464	.167	63.265	.171
	가구소득	-14.760	-.041	-17.426	-.049	-18.738	-.052	-14.858	-.042	-11.812	-.033
돌봄 대상 노인	연령			-3.468*	-.160	-3.667*	-.169	-3.898*	-.179	-3.476*	-.157
	성별			-48.016*	-.131	-47.858*	-.131	-38.062	-.104	-36.593	-.098
	질병			20.704	.049	18.598	.044	18.393	.044	14.380	.611
	상태			25.790	.067	27.112	.070	28.344	.074	29.339	1.455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정도					10.553	.059	9.325	.052	-5.007	-.526
	돌봄후 관계 만족도					7.138	.033	5.573	.026	17.041	1.447
	돌봄 선택의 자발성					11.674	.052	11.498	.051	20.286	1.598

독립변수		<모델1> 돌봄자모델		<모델2> 돌봄대상노인모델		<모델3> 노인과의관계 모델		<모델4> 지원네트워크 모델		<모델5> 경제적부담모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지원 네트 워크	부돌봄자 유무							-41.840*	-.111	-35.692	-1.676
	돌봄시설 이용여부							-4.224	-.009	13.184	.531
	돌봄 도우미이용							8.250	.007	-2.067	-.037
	돌봄지원 가족여부							.090	.000	-7.120	-.278
경제적 부담도	비용부담									8.659	1.491
N		380		380		380		380		380	
F		20.088***		14.475***		11.589***		9.343***		7.720***	
R2(adj. R2)		.274(.261)		.302(.281)		.308(.281)		.318(.284)		.355(.309)	

* p<.05; *** p<.001

(2)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한 요인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모델1>에서 취업여부와 노인과의 관계2-며느리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비취업자가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이 더 길어 앞서 설명한 총돌봄노동시간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또 노인의 배우자가 돌봄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며느리인 경우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총돌봄노동시간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 <모델2>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돌봄자의 연령과 노인 특성으로는 연령과 상태이다. <모델1>에서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2-며느리 변수가 빠지고 연령이 추가된 점이 달라진 점이다. <모델3>과 <모델4>, <모델5>를 보면 새롭게 추가된 노인과의 관계, 지원네트워크, 경제적부담정도 요인의 개별 변수는 유의미한 것이 없었지만 모델의 설명력을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독립변수 전체 가운데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해 유의미한 변수는 돌봄자의 연령, 취업여부, 노인의 연령 변수이다.

〈표 13〉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델1〉 돌봄자모델		〈모델2〉 돌봄대상노인모델		〈모델3〉 노인과의관계모델		〈모델4〉 지원네트워크모델		〈모델5〉 경제적부담모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392.479		542.884		506.022		515.025		270.966	
돌봄자	성별	-3.617	-.007	-38.263	-.079	-40.513	-.083	-41.327	-.085	-46.197	-.092
	연령	.742	.058	3.575*	.281	3.674*	.289	3.615*	.285	4.259*	.335
	취업여부	139.932***	.305	131.811***	.287	131.732***	.287	129.831***	.283	149.346***	.323
	건강상태	-1.477	-.008	-2.839	-.015	-3.503	-.018	-3.589	-.019	1.099	.006
	관계1- 자녀	-29.371	-.072	46.452	.113	45.112	.110	46.307	.113	49.838	.122
	관계2- 며느리	-86.919**	-.233	-5.627	-.015	-1.374	-.004	-.371	-.001	2.837	.008
	가구 소득	-17.729	-.050	-21.182	-.059	-21.275	-.059	-22.432	-.063	-14.325	-.040
돌봄 대상 노인	연령			-4.667**	-.215	-4.791**	-.220	-4.809**	-.221	-4.212*	-.191
	성별			-31.122	-.088	-31.874	-.087	-30.038	-.082	-28.989	-.078
	질병			5.490	.013	.729	.002	.150	.000	-4.955	-.012
	상태			42.266*	.110	42.724*	.111	41.936***	.109	35.860	.092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 정도					4.007	.022	4.000	.022	-3.876	-.022
	돌봄후 관계 만족도					10.158	.047	10.043	.047	18.969	.090
	돌봄 선택의 자발성					.005	.000	.227	.001	5.041	.023
지원 네트 워크	부돌봄자 유무							-7.271	-.019	10.459	.028
	돌봄시설 이용여부							-9.915	-.020	2.411	.005
	돌봄 도우미 이용							63.780	.054	47.847	.044
	돌봄지원 가족여부							2.260	.005	-11.088	-.023

(계속)

독립변수		<모델1> 돌봄자모델		<모델2> 돌봄대상노인모델		<모델3> 노인과의관계모델		<모델4> 지원네트워크모델		<모델5> 경제적부담모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경제적 부담	비용부담									16.447	.157
N		380		380		380		380		380	
F		13.740***		10.670***		8.449***		6.617***		6.078***	
R2(adj. R2)		.205(.190)		.242(.219)		.245(.216)		.248(.211)		.303(.253)	

* $p < .05$; ** $p < .01$; *** $p < .001$

2) 돌봄자의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래 <표 14>는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돌봄자 특성으로는 건강상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가구소득과 노인의 질병, 상태가 유의미하였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그리고 노인의 상태가 중증일수록 돌봄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노인을 돌보는 경우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과의 관계 요인은 돌봄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으나 돌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돌봄후 노인과의 관계 만족도 변수가 유의미하였다. 노인을 돌보게 된 이후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돌봄스트레스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모델4>에서 지원네트워크의 경우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돌봄자유무에 따라 돌봄노동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돌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준다. 다음 <모델5>을 보면 경제적부담정도는 돌봄스트레스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6>과 <모델7>은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요인과 총돌봄노동시간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각각의 모델을 보면 돌봄스트레스에 대해서 총돌봄노동시간과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 모델의 Adj. R2값이 총돌봄노동시간모델보다 더 높아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델1〉 돌봄자모델		〈모델2〉 돌봄대상노인모델		〈모델3〉 노인과의관계모델		〈모델4〉 지원네트워크모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72.209		74.714		87.786		86.501	
돌봄자	성별	.247	.008	.458	.015	1.634	.052	1.433	.046
	연령	-.028	-.035	-.087	-.107	-.117	-.144	-.139	-.172
	취업여부	.898	.031	.784	.027	.508	.017	.555	.019
	건강상태	-2.949***	-.243	-2.911***	-.240	-2.805***	-.231	-2.763***	-.228
	관계1- 자녀	.845	.032	-1.030	-.039	-.270	-.010	-1.377	-.053
	관계2- 며느리	.531	.022	-1.027	-.043	-1.480	-.062	-2.634	-.110
	가구소득	-2.346	-.103	-2.811*	-.123	-2.640*	-.115	-2.702*	-.118
돌봄 대상 노인	연령			.009	.007	.047	.034	.074	.053
	성별			-1.064	-.046	-.847	-.036	-1.192	-.051
	질병			-3.378*	-.126	-1.765	-.066	-1.583	-.059
	상태			6.262***	.254	5.737***	.233	5.721***	.232
돌봄자 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정도					-.084	-.007	-.111	-.010
	돌봄후관계 만족도					-4.550***	-.330	-4.491***	-.326
	돌봄선택의 자발성					-.805	-.056	-.813	-.057
지원 네트 워크	부돌봄자 유무							.663	.027
	돌봄시설 이용여부							2.076	.067
	돌봄도우미 이용							1.917	.025
	돌봄지원 가족여부							2.529	.081
경제적 부담	비용부담								
1일총돌봄노동시간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									
N		380		380		380		380	
F		4.026***		6.004***		8.517***		6.983***	
R2(adj. R2)		.070(.053)		.152(.127)		.246(.217)		.258(.221)	

* p < .05; *** p < .001

〈표 14 계속〉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델5〉 경제적 부담모델		〈모델6〉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모델		〈모델7〉 1일돌봄노동시간전체 모델	
		b	beta	b	beta	b	beta
상수		67.291		65.041		63.243	
돌봄자	성별	.058	.002	.441	.013	.467	.014
	연령	-.046	-.055	-.081	-.097	-.060	-.072
	취업여부	-.445	-.015	-1.685	-.055	-2.115	-.070
	건강상태	-1.738**	-.138	-1.747**	-.139	-1.719**	-.137
	관계1- 자녀	.429	.016	.015	.001	.212	.008
	관계2- 며느리	-1.462	-.061	-1.486	-.062	-1.898	-.079
	가구소득	-1.774	-.075	-1.655	-.070	-1.692	-.072
돌봄 대상 노인	연령	.019	.013	.054	.037	.043	.029
	성별	-.831	-.034	-.590	-.024	-.579	-.024
	질병	-2.600	-.094	-2.559	-.093	-2.699	-.098
	상태	5.578***	.218	5.280***	.206	5.376***	.210
돌봄자와 노인의 관계	돌봄전 친밀성정도	-.079	-.007	-.046	-.004	-.044	-.004
	돌봄후 관계만족도	-4.562***	-.330	-4.719***	-.342	-4.679***	-.339
	돌봄선택의 자발성	-.665	-.046	-.7.7	-.049	-.804	-.056
지원 네트 워크	부돌봄 자유무	1.898	.077	1.811	.074	2.143	.087
	돌봄시설 이용여부	1.826	.059	1.806	.058	1.736	.056
	돌봄 도우미이용	.534	.008	.137	.002	.549	.008
	돌봄지원 가족여부	.298	.009	.390	.012	.347	.011
경제적부담	비용부담	2.046***	.298	1.910***	.278	1.987***	.289
1일총돌봄노동시간						.007	.105
가사활동제외 돌봄노동시간				.008*	.126		
N		380		380		380	
F		7.923***		7.866***		7.732***	
R2(adj. R2)		.361(.316)		.373(.325)		.369(.321)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시사점

이상에서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았다. 돌봄자의 1일 총돌봄노동시간에 대하여 유의미한 변수는 돌봄자의 취업여부, 노인의 연령, 부돌봄자 유무로 나타났다. 즉 비취업자일수록,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 부돌봄자가 없는 경우 돌봄자의 총돌봄노동시간은 더 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해 각각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돌봄자의 연령, 취업여부, 노인의 연령 변수이다.

여기서 돌봄자의 취업요인은 취업자의 경우 노동시간을 제외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취업자의 1일 총돌봄노동시간이 9시간 43분이며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또한 6시간 2분에 이르는 것은 취업자의 돌봄과 직장 병행 부담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물론 비취업자의 돌봄노동시간 또한 13시간40분(가사활동제외~8시간47분)으로 하루 중 절반을 돌봄노동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돌봄시설이나 도우미 등 공식적 지원서비스 이용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가족내에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 1일 총돌봄노동시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부돌봄자 유무 변수가 제외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가사활동제외돌봄노동시간에서 부돌봄자의 영향이 없어지는 것은 부돌봄자가 주로 가사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돌봄자는 여전히 노인돌봄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치매노인 돌봄자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 장혜경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주돌봄자에 매우 의존하기 때문에 주돌봄자이외에 다른 가족원으로 돌봄자를 대체하거나 교대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돌봄자의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다.

돌봄스트레스의 경우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했던 독립변인들 가운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있었다. 돌봄자의 개인적 자원이나 특성 변인의 돌봄스트레스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건강상태만이

7개의 모델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일부 모델에서 유의미하였다. 배우자, 며느리, 자녀 등 노인과의 가족관계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부담정도가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윤현숙·류삼희, 2007)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돌봄선택의 동기 변인도 돌봄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혜지(2005)는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가족수발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에 대해 전통적 가치관이 가족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의사에 의해 노인수발을 담당하는 경우, 가족수발자의 전통적 가치관은 수발부담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자율적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수발을 담당하는 수발자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할수록 수발부담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이는 노인 돌봄이 배우자 또는 며느리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의 역할로 인식되어온 한국의 가치체계를 고려한다면 돌봄선택이 비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 돌봄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⁹⁾.

또한 지원네트워크는 돌봄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돌봄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에 대한 공적지원서비스의 제도화가 미흡한 현실에서 시설이나 도우미 등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부돌봄자 유무와 돌봄지원가족 유무 등 가족내 돌봄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경우도 돌봄자의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아 돌봄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인 지원도 불충분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경제적 부담 정도와 돌봄노동시간도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유의미한 변수로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수록, 돌봄노동시간이 길수록 돌봄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돌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돌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 돌봄노동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의 경우에도 장시간

9) 돌봄자의 가치관에 대한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취업자에 대해서는 돌봄과 직장 병행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또 비취업자의 경우도 부돌봄자가 있는 경우 돌봄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므로 돌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돌봄자의 돌봄노동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 노인이 주돌봄자에 대해 매우 의존하고 있어 인력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노인돌봄이외의 노동에 대한 지원, 즉 예를 들어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가사지원서비스의 포함여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가사지원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의 노인은 가족돌봄자를 대신하여 가사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로 인해 돌봄자와의 애착관계가 강한 경우에는 주돌봄자의 가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총돌봄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내용에 가사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돌봄자는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인 돌봄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가정에 고립되어 장시간 노인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자의 돌봄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주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수록, 노인의 상태가 중증일수록, 또 노인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수록 돌봄스트레스가 커짐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돌봄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의 노인돌봄위기에 대응하기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고 200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족 돌봄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에 의한 사적 돌봄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돌봄대상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가족돌봄자에 대해 일시휴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노인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장혜경 외: 382~5).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또한 노인 돌봄의 근간이 가족 등 비공식돌봄자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자조모임 구성, 일시휴식서비스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내부자료). 서구 복지국가의 노인 돌봄 정책의 최근 동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능한 한 노인이 오랫동안 본인이 살던 집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탈시설화와 함께 의료(Hospital care)와 사회적 케어(social care)의 경계 완화, 현금 급여의 증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장혜경 외: 347~8)등이다. 특히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탈시설화등 각종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결국 노인 돌봄 공급체계가 잘 정비된 서구복지국가의 경우에도 가족은 여전히 노인 돌봄노동 공급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다수가 여성인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여성을 돌봄자 역할에 고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동의되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족돌봄자에 대한 공적 지원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서비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금까지 노인 돌봄이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 가족내에서도 여성의 책임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그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돌봄노동시간과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구성한 모델에 대해 단순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는 향후 엄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가족돌봄자의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에 근거한 분석 작업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수영·김진선·윤현숙(2004).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 예측요인. *한국노년학*, 24(2): 111~128.
- 김혜경(2004). 일본 재가 요보호노인과 부양자간의 관계의 질과 부양자의 정신 건강. *한국노년학*, 24(2): 129~144.
- 백주희(2007). 부양 전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기간이 치매노인 부양자의 스트레스 평가, 복지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255~272.
- 서문경애(2005). 치매노인 가족의 누적스트레스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25(2): 195~209.
- 송현애·이정덕(199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115~23.
- 엄명용(2001).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원)가족관계 양상 분석 및 개입전략의 제시.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7: 206~42.
- 윤현숙·류삼희(2007).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배우자와 자녀 비교-. *한국노년학*, 27(1): 195~211.
- 임미영·김윤정(2006).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형태별 부양스트레스. *노인복지연구*, 34: 163~90.
- 이신숙·서병숙(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제4호, 57~71.
- 이영미·유인영(2005). 치매노인 부양자의 우울과 부양부담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3): 329~346.
- 이혜자(2006).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여부가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2): 255~272.
- 장윤옥(2000).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및 개인적 특성과 주부의 관련변인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203~16.
- 장윤옥·정서린(2004).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

- 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6호, 73~88.
- 장혜경·홍승아·김수정·김영란(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2006). 가족내 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혜지(2005).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이 가족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5(1): 103~118.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 내부자료.
- Comas-Herrera, A.(2003). *European Study of Long-Term Care Expenditure*.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DG, PSSRU Discussion Paper 1840.
- Evers, A., Pijl, M. & Ungerson, C.(1994). *Payments for Care-A Comparative Overview*. European Centre Vinna: Avebury.
- Feinberg, L. F. and Newman, S. L.(2004). A Study of 10 States(10개 주) Since Passage of the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Policies, Perceptions, and Program Development. *The Gerontologist*, 44(6): 760-769.
- Glendinning, Caroline(1992). *The Costs of Informal Care: Looking Inside the Household*. Social Policy Research Unit. London: HMSO.
- Glendinning, Caroline & Eithne McLaughlin(1993). *Paying For Care: Lessons From Europe*. Social Security Advisory Committee Research Paper 5
- Henz, U.(2006). Informal Caregiving at Working Ag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and Family Configu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411~429.
- Hilary, Arksey & Michael Hirst(2005). Unpaid Carer's Access to and Use of Primary Care Services.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and*

- Development*, 2005(6): 101~116.
- Hilary, Arksey etc(2004). *Review of Respite Services and Short-Term Breaks for Carers for People with Dementia*, Report for the National Co-ordinating Centre for NHS Services Delivery and Organisation R & D(NCCSDO).
- Hirst, Michael(2001). Trends in Informal Care in Great Britain During the 1990s.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9(6): 348~357.
- Horowitz, Amy & Goodman, Garyn R., Reingardt, Joann P.(2004). Congruence Between Disabled Elder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44(4): 532~542.
- Kosberg, Jordan I., Richard E. Cairl(1986). The Cost of Care Index: A Case Management Tool For Screening Informal Care Providers. *The Gerontologist*, 26(3): 273~78.
- Kosberg, Jordan I., Richard E. Cairl, Donald M. Keller(1990). Components of Burden: Interventive Implications. *The Gerontologist*, 30(2): 236~42
- Porter, E. J., Ganong, L. H., Drew, N., and Lanes, T. I.(2004). A New Typology of Home-Care Helpers. *The Gerontologist*, 44(6): 750~759.
- Stull, Donald E., Karl Koloski, and Kyle Kercher(1994). Caregiver Burden and Generic Well-Being: Opposite Sides of the Same Coin?. *The Gerontologist*, 34(1): 88~94.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Elderly Care work Hours and Stresses in Care work among Family Caregivers

Youngran Kim*

This study examined factors that affect family caregivers who looks after elderly total care work hours and care work stresses. The target analysis group was informal caregivers who cohabit with kin elderly. Also, explaining between care givers and care recipients were restricted only to spouse, daughter-in-law and children.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used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us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affecting factors in care work stress and care work hours. Especially, care work hours were dividedly examined by total care work hours per day and care work hours excluding household chore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otal per day care work hours, it was unemployed, the age of the care recipients, and absence of co-care givers that showed proportionately affected total length of care work hours. Moreover,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otal care work hours except household chores were caregiver's age, employment status and care recipient's age. For care work stress, health condition affected through out all 7 models, household income was significant only in some of the models. It also showed that setting up relationships between caregivers and care recipients were important as subjective satisfaction of the caregivers is considered an affecting factor of the caregiver's stress. Degree of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nior Researcher

economic responsibility and care work hours also were considered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care work stress that length and intensity of burdens and hours aggravate care work stress.

Based on the results, supporting caregivers to reduce working hours and in addition to alleviate caregivers' stress, social aid in health and easing economic burden to help caregivers were proposed.

Key Word: family caregiver, elderly, care work, elderly care recipient, care work hours, care work stress